

ACTS 神學과 宣敎

칼빈의 인간론 연구

우 심 화(중국선교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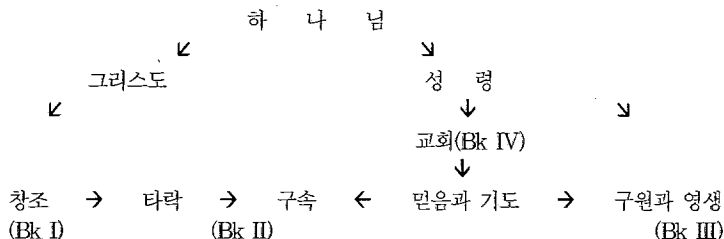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본위(本位),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¹ 본문에서는 그의 신학을 정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인간론을 고찰하고자 한다.² 칼빈의 인간론 연구를 통해 그의 인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의 인간론이 ACTS의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에 시사하는 점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칼빈의 인간론을 1.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 2.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간, 3.하나님께로 돌아가야하는 인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

A.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오늘날 인간은 자신의 유래를 진화에서 찾거나 심지어 외계에서

1. 한철하 박사는 이를 “Calvin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 남고, 모든 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Calvin의 신학 - 하나님 중심의 구원중심의 목회신학”(2001년 5월))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기독교강요』의 대표적 연구자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강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창조자 되시고(BK I)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되신(BK II)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교회가 가르쳐서(BK IV)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단체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BK III) 진리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철하, “Calvin의 신학 - 하나님 중심의 구원중심의 목회신학”; “Calvin의 기독교종교: 눅 7:41-43; 47-50”(2001년 6월), 3f;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언”(KETS 제 29차 논문발표회, 1997년 4월); “Calvin에 있어서의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2001년 5월).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적응력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외계유입설도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의 유래와 정체가 설명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³ 특히 타락 후 인간에게 기형적으로 잔존한⁴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만 더더욱 자신의 유래와 처지, 자기 인식을 정확히 도출해낼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칼빈은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유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다.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 첫째로, 주님은 우주에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에서와 같이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다.⁵

하나님께서서는 조물주이시며 인간은 우주 만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피조되었음⁶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외계에서 유입되거나 진화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B.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인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칼빈은 다

3. Robert L. Saucy, "Theology of Human Nature", *Christian Perspective on Being Human*, ed. J. P. Moreland and David M. Cio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20. "Man is made 'in the image of God'(Gen.1:26,27). This statement informs us that the identity of man is known only in relation to God. For that which is by nature the 'image' of something else can only be fully understood by knowing that which it images."

4. 칼빈은 이를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 I.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Vol. II.2.12. 이하에서는 "Institutes"라고만 표기한다.

5. *Institutes*, I.2.1; II.1.3. 한철하, "Calvin의 기독교종교: 눅 7:41-43; 47-50", "Bk I.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창조는 모든 것의 출발이요 바탕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6. *Institutes*, I.15.5; II.1.1 등.

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흠으로 지음 받고 “무형의 실체”⁷인 영혼이 그 안에 거하는⁸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⁹고 말하고 있다.

(영혼은) 육체를 거소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자극한다.¹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흠으로 빚어 만드신 후 영혼이 그 안에 머물러 생명력을 지니게 하셨다는 것이다.¹¹ 인간은 이로써 지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C.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위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육과 영혼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칼빈은 언급하고 있다.

흠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¹²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으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을 좌소로 삼아 인간 속에 내재하였다고 덧붙여 설

7. Ibid., I.2.1.

8. Ibid., I.15.1.

9. Ibid., I.15.2.

10. Ibid., I.15.6.

11. John Calvin, *Genesis*, Calvin's Bible Commentaries, Vol. I (AGES Digital Library, 1998), 57-58.

12. *Institutes*, II.1.4.

명하고 있다.

형상의 본래의 좌소(the proper seat)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³

칼빈은 이로써 인간은 만물 중에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특징이 새겨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칼빈은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同義語)로 이해하고¹⁴, 이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reflection)”이라고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다.¹⁵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탁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reflection)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을 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형상”에 관한 정의는 충분히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형상과

13. Ibid., I.15.3.

14. Ibid. 칼빈은 “형상”과 “모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으로, 설명을 위해서 모양 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하셨다는 것이다.” Robert L. Saucy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the Reformers and most modern interpreters rightly see the words ‘image’ and ‘likeness’ more synonymously. The interchangeability of the terms supports this understanding (e.g. Gen. 1:26; 5:3; 9:6). The terms are best understood as complementary in their reference to mankind with the second explaining and supplementing the first. Humanity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namely, an image that is like God.” (“Theology of Human Nature”, *Christian Perspective on Being Human*, 22.)

15.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Wm.B.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36, “There is no doubt that Calvin always thinks of the imago in terms of a mirror.”

갈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¹⁶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놓으심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¹⁷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타락 전 태초의 인간의 모습은 오늘 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이하게 창조된 인간이 만물 중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D. 만물 중 특별한 존재

칼빈은 인간이 감각과 욕망을 지닌 면에서는 동물들과 공통적인 하지만¹⁸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¹⁹, 인간의 모습(외형)²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품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며 우월하게 하는 근거였다는 것이다.²¹ 인간은 하나님의 의, 지혜, 선과 권능을 보여 주는 가장 고귀하고 두드러진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²²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 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 ...²³

16. *Institutes*, I.15.4.

17. *Ibid.*, I.15.3.

18. *Ibid.*, II.2.26.

19. *Ibid.*, II.1.5.

20. *Ibid.*, I.15.3.

21. *Ibid.*, II.2.12; II.12-16의 요약.

22.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동물들과 구별되는 우월함이 있다고 말한다. *Ibid.*, I.15.1, II.2.12-17.

23. *Ibid.*, I.15.1. 기타 I.5.3-6 참조.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에까지 확대된다. ...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속(凡俗)에서 구별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E. 타락 전 인간의 상태(의, 거룩, 자유의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에겐 지금의 인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 진실, 공의, 성결, 지혜, 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은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의 이성과 지성, 사려 분별, 판단은 지상 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여기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조정하고,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리하여 의지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초래하였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던 것이다.²⁵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와 같이 특별히 지음받고 오늘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성을 부여받아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24. Ibid., I.15.3.

25. Ibid., I.15.8. 이 밖의 언급은 II.1.1, II.1.3, II.1.5, I.15.3, II.3.13 참조.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부여받고 소유하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로 창조 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 베푸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것이 조금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묵인 하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인간이 자존적(自存的)이며 자립적(自立的) 존재가 아닌(하나님께) 의존적(依存的), 관계적(關係的) 존재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상태”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완전한 상태”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26. Ibid., II.1.1.

27. 이는 칼빈이 인간의 자기 이해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인간의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Ibid., I.1.1);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Ibid., I.1.3).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52, “This shows us that the image of God is not any natural property of the soul, but is a spiritual reflection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in knowledge and truth, which should characterize all human nature. … It is God's action on man by the imprint of the Truth upon his mind, and becomes man's possession only in the active response of love and obedience. Therefore the strength of the *imago dei* and its continued maintenance in man lie in the Word of God and not in the soul of man.”; 59, “Calvin's doctrine of the *imago dei* in man sums up the whole of this relation between man and God. Its being is to be found in the activity of this relation. The knowledge by which the *imago dei* is formed in the soul of man comes by obedience.”; 61, “Calvin's conception of the *imago dei* must be regarded in the context of his doctrine of the *creatio continua*. … Calvin constantly thinks of man, and of the *imago dei*, in terms of this dynamic relation to God. The image of God is in no sense a static reflection of the being of God, but a dynamic reflection by way of active obedience

II.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간

A.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계기

인간은 흠으로 빚어졌지만 그 속에 영혼을 지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만물의 영장인 탁월한 존재가 되었고 완전함과 영원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 나무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그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며 악한 정욕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 그러니까 불충이 타락의 근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생겨났다.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 흠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는 것을 사소한 일로 보았으니, …

끝으로, 배신으로 인하여 야심이 생겼으며 야심은 참으로 완강한 불순종의 모태가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버린 사람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뛰어들었다. 그러므로 그 때에 사탄에게 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²⁸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에 만족하며 교만하거나 그 이상의 야심을 품지 않기를 원하시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야망을 갖게 되었다. 결국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²⁹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to the Word and Will of God. …”

28. *Institutes*, II.1.4.

29. *Ibid.*, I.15.8, II.3.5.

배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칼빈은 인간의 자발적인 타락, 이로 인한 인간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웠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 그의 마음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다. ... 실로 인간은 그의 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³⁰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면서 “운명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³¹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³²,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³³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타락을 자발적으로 초래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아”³⁴ 자신의 자유의지³⁵ 로 스스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자진 타락할 수 없게 만드시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두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0. Ibid., I158.

31. Ibid., I162.

32. Ibid., I163.

33. Ibid., I166.

34. Ibid., I158.

35. 칼빈은 *Institutes*, II.3.13에서 이를 어거스틴의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

범죄할 수 없거나 범죄를 원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강요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실로 그러한 인간성은 한층 탁월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치 이런 본성을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주시기 때문이다.³⁶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상태로 창조하시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왈가왈부할 것이 전혀 못되고 불평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들어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진 내용으로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이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한다.³⁷ 환언하면 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진 비밀로서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상으로 알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인간의 타락은 인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B. 하나님과 떨어진 결과

인간이 피조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선고하신 재앙³⁸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기독교강요』 제2권 1장 9절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나는 말한다. 저급한 욕망이 그를 유혹했으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 바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심정의 밑바닥에까지 침투한 것이다. ... 바울은 부패는 영혼의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는 저 죽을 병이 들지 않은 순결한 부분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이 점에

36. Ibid., I.15.8.

37. Ibid., I.15.8, I.16.9.

38. 창세기 2:17.

대하여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부패한 본성을 논할 때에, 눈에 보이는 육망의 과도한 충동을 비난할 뿐 아니라 특히 지성의 눈이 멀고 심정이 썩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 나는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는 것만을 간단히 시사하고자 한다.

이 밖의 『기독교강요』의 여러 내용에서도 칼빈은 반복해서 인간은 의와 생명을 잃고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였으며³⁹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다”⁴⁰, “우리의 속과 주위는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⁴¹, “하나님의 형상은 ... (타락)후에는 부패하여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다”⁴², “인간은 전적으로 욕이다”⁴³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칼빈은 말한다. 아담은 그와 함께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2권 1장 7절의 “죄의 유전”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담이 그 받은 천품들을 잃었을 때에, 자신만이 잃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잃게 한 것이다. 아담이 잃어버린 천품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받은 것이며 ... 아담이 죄에 전염되었을 때에 감염이 인간 성에 잠입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행각이 아니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에 부패가 전달되었다. ...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 없이 흘러간 것이다. ...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사람은 썩은 본

39. *Institutes*, II.1.15, II.1.16.

40. *Ibid.*, II.1.8.

41. *Ibid.*, I.1.2.

42. *Ibid.*, I.15.4

43. *Ibid.*, II.3.1.

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가 아니라 유죄한 자녀를 낳는다.⁴⁴

칼빈은 아담에 의해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계기는 시조 아담이 죄에 전염되었을 때라고 말한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죄에 감염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의 감염은 전 인류를 타락과 파멸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갓 잉태된 생명들도 죄의 병에 전염되고 부패에 감염되므로 함께 파멸에 처해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류의 부패와 파멸이 아담의 죄책(the guilt)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파멸에 처한 것은 아담이 인간성의 뿌리였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인간성이 죄에 감염되었고, 동시에 아담의 인간성에 뿌리를 둔 모든 인간의 인간성도 죄에 전염되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즉 인간은 유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결국 허위로 기울어져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에게 ...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힘을 동등하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요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의지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로 이 말은 사실이다.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며 자기의 힘으로 선악간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 그러나 기꺼이 허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며⁴⁶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첫째로 ...,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죄” 이것에서 “죄들” “죄의 열매”가 나온다. 둘째,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앞에서 이미 언급된 육의 일을 하는-를 맺는데, ...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

44. Ibid., II.1.7.

45. Ibid., II.1.6. 이 밖의 관련내용으로는 II.1.5, I.15.8, II.4-7 등 참조.

46. Ibid., II.2.7.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적으로 인간은 육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⁴⁷

이처럼 인간에게서는 의와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인간은 쉼 없이 죄를 재생시키므로 인간은 결국 죄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⁴⁸

죄가 처음 인간을 노예로 만든 후, 죄의 지배력(the dominion of sin)은 모든 인류에 미쳤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도 완전하게 점령했다.⁴⁹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을 당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은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 또, 사람은 자유 의지를 악용하여 자기와 및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 버렸다. 또 자유 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없다.⁵⁰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고 기꺼이 사탄을 따르게 되었다고 칼빈은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악마의 종으로 매여 살 때에는, 자기의 뜻보다 악마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더 많은 것 같다. ... 어디선가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騎手)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와 비교했다. ...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세계에 예속되어 그 선동을 받는다고 한다. ... 우리의 의지는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들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탄의 간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

47. Ibid., II.1.8.

48.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2권 2장에서 인간의 노예됨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하고 있다.

49. Ibid., II.2.1.

50. Ibid., II.2.8. II.2.4 참조.

다. ... 불경건한 자들의 눈이 먼 것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된다.⁵¹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지배 하에 놓여 사탄을 순종하는 인간은 젖먹이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원죄는 ...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⁵² ...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 젖먹이들까지도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들에게서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씨는 그들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의 본성 전체는 죄의 하나의 씨앗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⁵³

아담의 범죄와 죄의 감염으로 아담과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받아 신음하고 있음을 칼빈은 언급하고 있다.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⁵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51. Ibid., II.41.

52. Ibid., III.11.21 참조.

53. Ibid., II.1.8. II.1 참조.

54. Ibid., II.1.5.

저간 과정 및 심각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와 죄의 감염으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며, 온 인류가 죄의 노예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처하였다는 것이다. 칼빈의 이와 같은 분석과 설명은 그가 죄와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나타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⁵⁵

A.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노예·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및 영벌의 심판에 놓임, 지극히 참담한 처지이자 비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간에게 당연히 나아가야 하며 유일한 살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리라.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영광을 잃어버림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⁵⁶

인간은 하나님께 발길을 돌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시인하고, 잃었던 선과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⁵⁷는 것이다. 그러나 인

55.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이란 제목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간언하면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하는 것이다.

56. *Institutes*, *ibid.*, II.2.1.

간은 비록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지만, 즉 하나님을 의식하여⁵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들 “하늘의 일”⁵⁹에 대한 이성과 능력의 한계⁶⁰ 및 선과 의가 결여된 인간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인간에게 더 없는 절망이 아닐 수 없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처절한 상태에 대해서 인간에게 그 어떤 의와 선도, 선한 일을 결심할 힘도 없으며⁶¹,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⁶²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인정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은 부패이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치욕이다”⁶³고 논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망과 멸망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인간에게 기사회생의 희소식이 선포되었으니, 칼빈은 이를 “생명의 교리”⁶⁴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한 후 유일한 살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돌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역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되돌림의 역사,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다.

(구속 사업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⁶⁶

57. Ibid.

58. Ibid., II.2.15, I.3.1, I.4.3, I.3.3, I.15.6, II.5.19 등 참조.

59. Ibid., II.2.13.

60. Ibid., II.2.10. 칼빈의 이성에 대한 견해는 II.2.12 등 참조.

61. Ibid., II.3.2, II.2.26-27.

62. Ibid., III.12.2.

63. Ibid., III.12.4.

64. Ibid., III.6.4.

65. Ibid., III.3.1.

칼빈은 이 “복음”은 “회개와 죄의 용서”로 되어있으며 이는 “새로운 생활과 거저 얻는 화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고⁶⁷ 설명하고 있다. 아담이 인간을 자기의 멸망에 끌어넣어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속의 은혜로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기에⁶⁸ 모든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⁶⁹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⁷⁰ 하나님께서 천히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⁷¹ 인간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기만 하면--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⁷²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므로⁷³--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칼빈은 구원의 대상은 창세 전에⁷⁴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언급하고⁷⁵,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다음과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66. Ibid., II.3.6. 칼빈은 II.5.17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는 II.5.8 등 참조.

67. Ibid., III.3.1, III.3.19.

68. Ibid., II.1.6.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독교강요』 제2권 전체, 특히 12-17장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69. Ibid., II.6.

70. Ibid., III.14.13.

71.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Ibid., II.3.8 등 참조.

72. Ibid., II.3.16. III.3.9, II.3.1 참조.

73. Ibid., III.6.3.

74. Ibid., II.3.8.

75. Ibid., III.22.10.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3권 22-24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 여러 변론을 하고 있다. 이밖에는 2.3.8 등 참고. 버림받은 자에 관한 내용은 II.5.5 등 참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의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킨다.⁷⁶

이와 함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여야만 말씀의 효과가 있다는⁷⁷ 칼빈의 말을 종합하면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말씀과 내적 갱신으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사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⁷⁸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動力因)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질료인(質料因)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形相因)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目的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⁷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은 과거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⁸⁰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

76. Ibid., II.5.5. II.3.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 …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굽히고 개조하며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견인불발의 정신을 확립시키심으로써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

77. Ibid., II.2.20, III.3.21.

78. Ibid., II.2.20. 칼빈은 사람들은 자유 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합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혼합은 은혜를 부패시킬 뿐이며 이는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II.5.15)며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간의 그 어떤 역할도 배제하고 있다.

79. Ibid., III.14.21. III.14.17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80. Ibid., III.6.3. III.17.5.

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거룩하며 결백하다고 인정받고⁸¹ 믿음으로 끊임없이 죄 사함을 받으며, 때가 오면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⁸²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인간의 변화를 칼빈은 “중생”으로 표현하고 있다.⁸³ 중생된 자는 죄의 노예, 사탄의 종됨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에서의 성화와 거룩이 있는 지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⁸⁴

B.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죄와의 전쟁과 평생의 회개(성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인간의 엄청난 변화를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칼빈은 한편 중생한 자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⁸⁵ 즉 “신자들은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⁸⁶ 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성화”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을 『기독교강요』 제 3권 3장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⁸⁷ 그 중 몇몇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1. Ibid., III.11.2, III.17.8.

82. Ibid., III.14.12.

83. Ibid., III.3.9.

84. Ibid., III.3.1, III.3.16-20.

85. Ibid., III.3.10.

86. 『기독교강요』 제3권 3장 10-15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해설 참조.

87. 한철하, “Calvin의 기독교종교: 록 7:41-43; 47-50”, “죄사함을 기초로 하는 칭의와 화해는 불과 3장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죄인의 변화 즉 회개와 이에 따르는 중생한 사람의 자기 부인의 생활은 3-10장 즉 8장을 할애하고 있고 또한 죄 사함에 호응하는 성화의 생활, 즉 ‘continual progress of justification’은 14-18장 즉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연합으로 결과되는 성화의 생활에 관하여 Calvin은 13장을 할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Calvin에 있어서의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진로”(2000년 11월)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Calvin은 그의 구원론의 태반의 지면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론과 죄사함을 받은 영혼의 선행론에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alvin은 그의 구원론을 복음의 두 부분 회개와 죄사함에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 있다. ... 중생시킴으로 ... 죄의 지배는 소멸된다. 이는 신자들이 성령의 주시는 힘을 받아 죄에 대하여 우세하게 되며 드디어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그것이 신자들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롬 6:6), 죄의 법이(롬 8:2 참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지만, 다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 흔적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력을 의식하게 하여 겸손하게 만든다.⁸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훈련이 계속된다. ...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fomes)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피며 자극한다는 것이다. ...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그들의 육속에 의와 싸우는 패악성, 곧 육욕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우리의 육신이라는 감옥(the prison house of our body)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결점과—아니 우리의 타고난 영혼 그 자체와(our own natural soul)—싸워야 한다. ... 육(the flesh)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리어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것이다.⁹⁰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

따라 구성하여 III권 3장에서 10장까지가 회개론, 11장에서 18장까지가 칭의론에 해당하나 첫 부분의 다섯장(제 6장에서 10장)을 그리스도인의 생활론을, 뒷부분의 다섯장(제 14장에서 18장)을 선행론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alvin은 그의 구원론 중 열 장을 신자의 거룩하고 선한 생활론에 바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Calvin은 마땅히 '성화의 교사'(doctrine of sanctification)라 불러 마땅합니다."

88. *Institutes*, III.3.11.

89. *Ibid.*, III.3.10.

90. *Ibid.*, III.3.20.

지와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로써 완전해진 것(의와 거룩함,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감옥인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지만 신자의 육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 죄가 남아 있고 이것이 죄를 짓도록 자극하므로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여⁹¹ 죄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결점, 타고난 영혼”과 몸바쳐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와의 전쟁은 신자가 죽을 몸을 벗어버리는 (또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신자는 일평생 회개를 실천해야 하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주장을 바꿔 말한다면 지상에서 중생한 자의 삶은 결코 순결하거나 죄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자가 어떤 의를 체득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잇는 죄악들로 인하여 부패해지므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죽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⁹² 이와 같은 논술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칼빈의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발견하고 “이신칭의”의 기독교 중심전리를 확인하게 된다.

비록 중생한 자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⁹³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⁹⁴ 자기를 부정하며⁹⁵ 그리스도를 현세의 삶에서 나타내고자⁹⁶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⁹⁷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시며 다음과 같은 칭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91. Ibid., III.65.

92. Ibid., III.14,10,11, III.17.5.

93. Ibid., III.96.

94. Ibid., III.31, II.225, II.311 등.

95. Ibid., III.7-8.

96. Ibid., III.6.3.

97. Ibid., III.65.

우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의 죄책이 도말되고, 선행까지도 항상 더럽히는 불완전하게 하는 허물(the fault of imperfection)이 문혀 버린 후에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되거나 또는 의로 인정된다.⁹⁸

결 론

이상으로 『기독교강요』를 통해 칼빈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육과 영혼과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물보다 탁월하게 지어졌음을 칼빈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담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에 감염시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리하여 인간은 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비록 구원받은 신자에게 죄가 육을 통해 여전히 작동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다가 죽을 몸을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의에 감싸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말씀(교회)을 통한 복음 사역으로 인해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98. Ibid., III.17.8, III.15.5, III.14.12 참조.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⁹⁹

칼빈의 이러한 인간론은 그의 논의의 핵심이 인간 구원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¹⁰⁰ 칼빈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즉, 구원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철저히 파멸시키며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이 땅에 사는 끝 날까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소중한가를 확신시켜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고 있다. 칼빈의 이러한 인간론은 ACTS의 신학 및 신앙운동의 정착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론은 ACTS 신학공관운동의 올바름을 확인시켜주고, 죄의 파멸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생한 자도 죄와의 싸움(회개, 성화)에 평생 질주하여야 한다는 인간론은 ACTS 신앙운동의 지속적 필요성을 더욱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99. 한철하 박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Calvin에 있어서는 …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창조되고 ‘타락’한 인생이 ‘교회’의 복음사역을 통해서 ‘믿고’ ‘기도’ 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Calvin의 ‘기독교종교’의 총괄이라 할 수 있는 『강요』 전체가 ‘창조되고 타락한 죄인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예수믿고 기도생활에 열심하여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더 짧게 ‘예수믿고 천당’ 이 한마디라 할 수 있음.”(한철하, “Calvin의 신학 - 하나님 중심의 구원중심의 목회신학”)

100. 한철하, “Calvin의 기독교종교: 녹 7:41-43; 47-50”, “『강요』의 4권의 책이 ‘구원’이란 한마디에 집중됩니다.”; 한철하, “Calvin의 완전주의”(광신대학교 광신신학 공개강좌, 2000년 5월), “Calvin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문제 삼고 시작합니다. … Calvin의 신학은 ‘죄인 구원’이란 단 한 가지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alvin 신학을 그 전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는 신학이라 하겠습니까.”;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 Calvin 자신이나 성경이 일처하여 가르치려는 것은 ‘구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한철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안”, “어거스틴-루터-칼빈-웨슬레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일이 가장 심각한 과제로서 전 인생을 이 한가지 문제”에 바쳤다. “사실 강요의 배열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중심진리를 중심으로 놓고 배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철하, “칼빈신학과 신학공관”(합동신학원 제 1회 칼빈강좌, 1999년 4월), “『강요』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사역을 통한 죄인 구원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